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 광주대에 발전기금

광주대학교는 15일 (재)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으로부터 2000만원의 대학발전 기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사진)

(재)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에서 열린 이날 기부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최갑렬 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 명문사학인 광주대학교의 더 큰 도약과 글로벌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김동진 광주대 총장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

(재)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019년 설립돼 교육사업과 인재 양성, 지역발전뿐 아니라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광주대 발전과 토목·건축·부동산학과 학생 장학금 및 연구활동비 지원을 위한 1500만원의 장학기금을 시작으로 2022년과 2023년 각각 1천만 원의 대학발전 기금을 기부하는 등 광주대학교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최동환 기자**

임성화 의원, '유촌동 유수지' 주민 설명회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은 지난 8일 유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촌동 유수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

이번 주민 설명회는 유촌동 유수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서구 안전도시국 관계자와 유덕동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유수지 필요성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저류 방식 검토 등 주요 용역 추진 사항을 주민들에게 보고했고, 그동안 방치돼 왔던 '유수지 활용 향후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됐다.

임성화 서구의원은 "구비가 소요되지 않는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시비(150억원)를 지원받아 유수지를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아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사랑의 연탄 4000장 나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연탄 4000장을 기부했다.(사진)

15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접견실에서 광주기독교단협의회와 사랑의 연탄나누기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전달식에는 화순전남대병원 민정준 병원장과 강호철 진료부원장, 이애경 간호부장을 비롯해 광주기독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종석 목사, 수석부회장 정석윤 목사, 상임부회장 나종갑 목사 등이 참석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22년 10월 광주기독교단협의회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연탄 4천 장을 기부하고 있다.

이 목사는 "광주전남을 넘어 세계적 암 병원으로 성장한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역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주고 있다"며 "또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며 사랑받고 있다.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서부소방, 겨울철 안전수칙 준수 당부

광주 서부소방은 15일 겨울철 펜션, 캠핑장 내 화재 및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사진)

캠핑장에서는 화재뿐만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해 연료가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하며 무색·무미·무취에 피부 자극이 없는 특성으로 중독 여부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에 광주 서부소방은 관내 펜션, 캠핑장 대상으로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1개 이상)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천장에서 0.3m 이하) △가스연소기 주변 가연성 가스 경보기 설치 △내부 화기 취급주의 △가스버너 과대 용기 사용금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

정성택 제21대 전남대 총장 이임식 성료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이 4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했다.(사진)

전남대는 지난 14일 대학본부 2층 용봉홀에서 제21대 정성택 총장의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임식에는 전남대 교직원과 학생을 비롯해 조성희 전남대총동창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임식은 정성택 총장 4년간의 발자취 발표를 시작으로 이임기념 영상 시청, 송공패 전수, 총장 백서 헌정, 내빈 축사, 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성택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전남대를 국내 최고의 거점국립대학교로 도약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도시철도, '생명나눔·사랑의 헌혈'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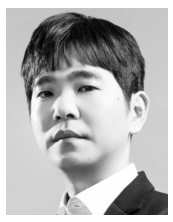
광주교통공사는 15일 서구 마륵동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공사 임직원 및 사옥 입주 업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며,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을 보탰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헌혈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모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바둑전설 이세돌, 두뇌 게임 한판…'데블스 플랜2'



바둑 전설 이세돌(사진)이 '데블스 플랜2'에 도전장을 낸다.

15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이세돌은 데블스 플랜2에 출연한다. 인공지능(AI)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세계 주목을 받았는데, 두뇌 서바이벌 게임에 도전한다.

출연진은 시즌1보다 2명 늘어난 총 14명이다.

배우 저스틴 H. 민과 그룹 '슈퍼주니어' 규현, JTBC 아나운서 강지영, 카이스트 출신 배우 윤소희, 프로포커 플레이어이자 음악프로듀서 세븐하이, 미스코리아 진 출신 대학생 이승현, 서울대 출신 인플루언서 정현규,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모델 최현준,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출연한다. 성형외과 의사 김하린과 2021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박상연,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 손은유, 보드게임 마스터 티노도 경쟁한다.

데블스 플랜은 다양한 직업군 플레이어가 일주일간 합숙, 최고의 브레인을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국내 넷플릭스 1위를 기록했으며, 23개국에서 톱10에 들었다.

정종연 PD는 "출연자를 선정하는 데 다양한 성격과 능력치를 고려했다. 제작자 입장에서 매우 만족도가 높다"며 "녹화 내내 쉬지 않고 머리를 쓰고 게임하는 게임의 전당을 설계했다. 출연자 본능에 충실한 일거수일투족을 엿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다이나믹 듀오·거미, 첫 컬래버 '테이크 케어' 발매

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와 가수 거미가 첫 음악 호흡을 선보인다.(사진)

15일 소속사 아메바컬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 첫 번째 컬래버레이션 싱글 '테이크 케어(Take Care)'를 발매한다.

'테이크 케어'는 다이나믹 듀오와 거미 각자의 주 장르인 힙합과 발라드가 조화를 이룬 곡이다.

두 사람은 아메바컬쳐의 2025년 포문을 여는 첫 컴백 주자다. 개코, 최자, 거미와 더불어 따마(THAMA), 쏠(SOLE), 릴러말즈 등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곡 작업에 참여해 완성도를 더했다.

다이나믹 듀오와 거미가 직접 작사한 가사에는 "잘 지냈으면 좋겠어"라는 말로 담담하게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주는 성숙한 이별 이야기가 담겼다.

다이나믹 듀오의 감성을 자극하는 랩과 노래, 거미의 애절한 보이스는 트렌디하면서도 포근한 비트에 듣기 편하게 어우러졌다.

개코와 거미가 화음을 맞춘 후렴구는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멜로디로 여운을 더한다.

'테이크 케어' 뮤직비디오에는 다이나믹 듀오와 거미가 출연해 케미스트리를 완성한다. 지난 14일 공개된 뮤직비디오 티저는 클래식한 공간 속 홀로 또 같이 노래하는 세 사람의 차분하면서 따뜻한 감성으로 본편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다이나믹 듀오와 거미는 '테이크 케어'를 통해 그동안 선보여온 이별 노래보다 한층 성숙해진 메시지를 전한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이나믹 듀오와 거미의 진정성 어린 이별송이 헤어진 사람과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의 공감을 이끌 전망이다. **뉴시스**

골든글로브 3관왕 '브루탈리스트' 내달 12일 개봉

영화 '브루탈리스트'가 내달 12일 개봉한다.(포스터)

배급사 유니버설 픽쳐스는 15일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다.

'브루탈리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흔적에서 영감을 받아 혁신적인 디자인을 창조해 낸 천재 건축가 라즐로 토스의 이야기다.

이 영화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비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감독상을 휩쓸며 3관왕에 올랐다.

브래디 코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애드리언 브로디가 주인공 토스 역을 맡았고, 펠리시티 존스·가이 피어스 등이 출연한다.

건축가 토스는 생사를 넘나드는 우여곡절 끝에 뉴욕 항구에 도착한다.

마침내 새로운 희망을 찾은 듯 감격해 하던 토스는 이내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건축 설계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반전 스토리를 예고한다.

러닝타임 3시간35분, 청소년 관람불가. **뉴시스**